

# 전남도, 글로벌 기후외교 무대 중심으로...국제의제 주도

20-25일 여수서 유엔기후주간 개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도 함께 열려  
시민참여형 확대 ‘그린컨벤션’ 방식  
1만4천여명 방문...200억 경제 효과

전남도가 20-25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FCCC Climate Week 3 Yeosu)’ 및 ‘녹색대전환 국제

주간(GX-Week)’을 개최하며 글로벌 기후외교 무대를 밝는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앞두고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기후 행사다.

이번 기후주간의 여수 개최는 지속적 외교 노력의 결과다. COP30에서 여수 개최 당위성을 설명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독일 본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방문하는 등 개최 노력을 꾸준히 펼친 결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했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도 동시에 열린다. 행사 공식 주제는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Green Transformation: A Path to Prosperity for All)’로 고위급 에너지전환 정책 대화, 인공지능 전략 대화 등이 진행된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기존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으로 확대한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주요국 기후 분야 장관, 국제기구 고위급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최식’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와 에

너지 안보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회의 등을 진행한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대전, 이클레이 세계기후도시포럼 등 지역 연계행사와 자원순환가게, 친환경플리마켓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행사장 모든 구역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대화용기를 사용하며 친환경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그린 컨벤션’ 방식으로 추진한다. 종이 인쇄물도 줄이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페이퍼리스’ 환경도 구축한다.

전남도는 행사 기간 해외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1천여명을 포함해 약 1만4천명이 여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전남은 이제 기후 논의 참여 단계를 넘어 국제 의제를 주도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친환경 운영과 체계적 지원으로 전남의 역량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녹색대전환의 글로벌 표준 국가로 도약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형 청년 일자리공제 30명 추가 모집

6월30일까지...청년 지역 정착 지원  
2년 500만원 적립시 1천만원 수령

광주시는 지역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30명을 17일부터 6월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중도 해지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때 1천만원의 공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청년은 광주에 뿌리내리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장기 근속 기반을 마련해주는 상생형 지원 사업이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에는 현재 151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02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모집 인원 50명에 이번 추가 모집 30명을 더해 총 33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지역에 위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39세 광주 청년이다.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6천357원)에 해당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변은진기자



백세 건강 저속노화 실천 백세건강검음학교가 16일 광주 서구청 뚝불출에서 열려 주민들이 전문 체력측정사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저속노화 실천을 위한 운동 재활과 근력강화 실습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제공)

## 도,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까지 연장

여름철 재유행 대비 조속 접종 당부

전남도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당초 오는 30일까지였던 예방접종 기간을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미접종자와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항암치료 중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지난 14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접종률은 51.9%(전국 42.7%)로 65세 이상 절반 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위험군 미접종자의 조속한 접종을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2025-2026절기 백신을 접종한 면역저자자는 접종 후 90일이 지나면 5월1일부터 의료진 상담을 거쳐 1회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미접종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 기간(약 4주)을 고려해 조속히 접종하는 것이 좋다. 접종 전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한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는 여름철 재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과 면역저자에게 여전히 위협적”이라며 “연장 기간에 접종을 완료해 개인 건강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광주시, 탄소중립 실천 ‘기후변화주간’ 운영

내일 시청서 ‘지구의날’ 기념식

22일 오후 8시 전국 동시 소등

광주시가 ‘제56주년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20-24일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은 시민의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 동시 소등 행사,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까지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는 18일 낮 12시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지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광주지역 100여

개 환경단체와 관계기관,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퍼포먼스,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어린이 그림대회, 자전거 대행진, 지구를 지키는 지구RUN(걷기대회) 등이 마련됐다. 자원순환·자연환경·에너지·녹색건강·녹색교통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된 23개 체험 부스가 시민들을 맞는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오면 물비누를 나눠주는 ‘소분소분 빛고을 기후장터’, 예코백에 지구 사랑 메시지를 담은 ‘글로벌 예코체크’, 탐블러를 가져와 현장에서 재사용하는 ‘잡자는 탐블러를 깨워라’ 등을 운영한다.

22일 오후 8시에는 ‘전국 동시 소등 행사’가 10분 동안 실시된다. 광주시청과 각 구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온도낮추기 우수 아파트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 등 100여곳이 참여해 불을 끄고 지구에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탄소중립실천 캠페인(5개 자치구), 찾아가는 평두메습지 생태교실(북구), 에너지 전환마을 캠페인(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G-ON(탄소중립실천) 교육(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역 특색에 맞춘 개별 행사를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 열기를 이어간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은진 기자

2026

#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